



봉우 컬럼

자기관리

나는 주의 종이 된 후 철저하게 나를 관리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다 털어버렸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 노력했고, 주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을 잘라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친구들도,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다 뒤로 하고 거짓 없이 올곧게 살려고 힘썼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만일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 또 내 관리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머니를 비롯한 나의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5-16).

이 말씀이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도박하고, 상스럽다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 하겠는가. 그러나 교회에 다니더니 말도 아름답게 하고, 착한 일을 찾아서 하고, 싸우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가 돈독하다면 ‘교회에 다니더니 달라졌네. 교회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추석이다. 모처럼 만난 안 믿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자기관리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전도다. 사랑은 아무리 싸도 냄새가 나는 법! 사랑과 용서, 관용과 배려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은은히 풍기는 것이 백 마디 말보다 낫지 않을까.

나는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

지난 1월, 새로운 30년을 선포하시고 첫 방문한 나라가 코스타리카(Costa Rica)였다. 당시 3개 도시를 돌며 힘겨운 일정을 진행했지만, 마지막 도시인 산카를로스(San Carlos)에서 아브라함(Abraham) 목사의 사모 나탈리(Natali)를 죽음에서 건지는 놀라운 역사로 깊이 인상이 남은 나라이다.

약 8개월 후에 다시 찾는 코스타리카, 산호세(San Jose) 공항에는 중국인 1.5세인 왕(Jose Antonio Wong) 목사와 교인들이 나와 목사님을 영접했다.

중국 화교는 어느 나라에서나 크게 성장하고 결집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기를 펴지 못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왕 목사는 부모를 따라 중미 니카라과(Nicaragua)로 건너와 대

였다. 그러나 열대지방의 스킨처럼 비는 곧 그치고 현장에 가보니 배수도 잘 되어 축구장 잔디에 물기만 조금 남아있을 정도였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첫날 집회가 열렸는데, 축구장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목사님은 왕 목사와 라구나(Laguna) 선교사에게 다음날에는 비 때문에 설치한 천막을 모두 걷어버리고, 시야를 가리는 스크린을 좀 더 바깥쪽으로 옮겨 설치할 것을 지시하셨다.

이튿날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오찬 초청으로 대통령궁을 방문하였고(관련 기사 4면), 바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오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간은 다 되어 가는데 축구장으로 찾아오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로 오는 성도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목사님은 육성으로라도 설교할 테니 축구장으로 사람을 모으라고 지시하시고, “우리가 방심하여 당한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다시 기도해 전무하셨다. 그야말로 위기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일단 축구장으로 향했다. 비는 내리고, 단상 천막은 폭우로 찢겨져 내려앉아 흉물스런 모습이였다. 엔지니어와 인부들은 음향 및 단상 장비들은 모두 철수중이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우리는 담당자를 불러 단상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들은 안전 문제가 있으니 불가하다고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지만,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하



2015 코스타리카 산호세 집회 광경

학까지 나오고 코스타리카로 이주하여 목회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매우 부드러운 인상에 맞게 웃는 모습도, 말투나 행동이 온유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왕 목사에 대해 반해버렸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집회는 축구장에서 진행되었다. 조명 시설도 훌륭했고, 단상이나 음향시설도 최고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화려하던 날씨가 오후 들어 급변하더니 먹구름이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안보일 정도

하는데, 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어제의 경험도 있었고, 이 선교사도 목사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곧 그치는 비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예민하고 예측불가인지 크게 깨달은 하루였다. 비록 폭우는 잠잠해졌지만, 보슬비로 변하여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폭우로 인해 단상 천막이 무너져 내려 음향장비가 다 찢고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철수하고 말았으며 왕 목사는 집회 장소를 교회로 옮겨서 진행하고 싶어 했다. 집회 시

여 단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후, 단상에 어지럽게 널려진 것들을 치우고 빗자루와 물걸레로 청소하였다. 바로 그때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전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먼저 축구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로 이동하여 2차 예배를 드린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자!” 그야말로 격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궁 방문



코스타리카 산호세 세미나 광경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상18:20~21)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러면 만사형통의 복이 나팔 불며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시니 우상숭배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사람의 비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고 당당히 밝히는 것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요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멋진 일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위험하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길을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하여 힘든 길임을 암시하셨습니다(마7:13~14).

초대교회 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세상과 사회, 가족으로부터 고립 당함은 물론이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신앙만은 타협할 수 없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봅시다. 그들은 털어도 먼지조차 나지 않는 흙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고,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힘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욥을 마귀에게 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시험하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내 편이 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사울왕, 발람 선지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 자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4:4).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힘들더라도 이긴 자의 편에 서야 나중에 함께 영광을 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꼭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 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시118:6~7).

오래 전의 일입니다. 목회 초, 파주 집회를 할 때 저는 그 회를 담임 하고 있는 이

봉 재 전 도 사 의 옥탑 방에서 묵었습니다. 그런 데 그 집에서 하루를 유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어지럽고 맥이 풀려 전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주범은 연탄 가스였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힘드네요.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란다. 그래도 오겠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저는 소리 내어 울면서 주님께 답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좋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렇다면 만물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이라 표현하렵니다.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은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중에 총도 맞고 악당에 잡혀 고초도 당하지만 결국 악한 것들을 일망타진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옛날에 즐겨 보던 서부활극 영화처럼, 고난과 시련의 과정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제가 오늘날 영광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들을

녹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는

그 것 을 보고 기

함했고, ‘여호와 의 편에 선’ 자들을 따로 분리한 다음

그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한 삼천 명 가량을 죽였습니다(출32). 솔로몬은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울러 얻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물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하나님 편에서 마귀의 편으로 갈아탄 결과입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왕상18:21).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석을 맞아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하게는 구타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은 이혼까지 당하는 자들도 봤습니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꼳끗하게 서야 합니다. 힘든지 알지만 꼭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사 당신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광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맺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5~39).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추석

기성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말인데 그 뜻은 ‘윙통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은 ‘유도리’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 비친 일본인들은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세 쪽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먹어치운 후에 단무지를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가온 종업원이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 규정상 단무지는 추가로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학생이 화를 억누르며 “돈을 더 드릴거나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하자 또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 규정상 단무지는 돈을 받고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유학생이 우동 다섯 그릇을 더 시켜서 우동은 먹지 않고 따라 나온 단무지만 골라서 먹고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름날 마당에 먼지가 나서 사장이 직원에게 마당에 물을 좀 뿌려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않고 계속 뿌리고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은 고지식하게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담배부터 피워 뉘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 일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신기한 광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푸는 직원이 그릇에 밥을 퍼서 계량저울에 달아서 정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완전히 숙달이 될 때까지 2~3개월은 그렇게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매뉴얼대로 기름의 온도를 맞추고 알람시계를 사용해서 정확한 시간까지 체크를 합니다. 모든 업무가 규격화 되어 있어서 일본 열도 어디를 가도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똑같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8년간의 일본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니 유명한 김밥집들이 많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한 집에 가서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동네에 있는 같은 김밥 집에 가서 김밥을 시켰는데 그 때의 실망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본에는 가업을 이어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일을 이어가니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양성 되고 명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윙통성은 없지만 정직, 정확한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재주가 많고 똑똑한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배울 것은 정해진 규정과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그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창세기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며(창 4:3~4), 신명기에서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신 15:19~21).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처음 것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물질 그 자체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제물,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처음 얻은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처음 밥 한술을 뜰 때가 가장 배가 고프며 또한 배고픔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처음 것, 온전한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도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히11:6).

서양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고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의식을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다. 햇곡식과 햇과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추석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을 다해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기억하여 산에서 들에서 나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의 열매도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25)



::세상을 보는 창::

엑소더스(Exodus)

얼마 전 터키 해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 아이가 피노키오 인형 같은 모습으로 엮여져 있었다. 세 살 배기 아일란 쿠르디 시리아 난민소년의 죽은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유럽의 양심을 깨웠다. 수 천 명이 지중해에 빠져 죽은 그 이전의 수많은 비극 앞에서도 꿈쩍 않던 유럽인의 양심이 세 살짜리 어린 아이의 비참한 주검을 직시하고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와 기아 등으로 조국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난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중동사태의 혼미에 따라 2011년부터 쿠르디와 같은 난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뿐더러 지중해에서 발생한 비참한 죽음은 최근 1년 동안 1만 명이 넘었고, 지중해를 통한 중동·아프리카 난민은 3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이다. 이런 난민들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

시리아 난민의 엑소더스를 보면서 문득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떠올랐다. 모세가 출애굽 2년 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한 결과 20세 이상 남자만 무려 60만 3,550명이었다고 민수기에 기록됐다. 이

는 12지와 중 레위지파와 여자, 아이, 노인이 제외된 숫자이다. 성서학자들은 당시 인구를 25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도 일제의 침략으로 약 300만 명, 6·25전쟁으로 260여만 명의 난민과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독일 망명을 원하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대거 개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크스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개종자들은 세례를 받았고,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핍박이 있는 고국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의 딸로 독일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이번 난민사태에 앞장서서 난민을 수용하기로 선언하고 난민들의 어머니라는 별칭까지 얻은 데에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이 배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베를린의 한 교회는 성도가 150명에서 600명으로 4배나 급증했는데, 새 신자 대부분이 무슬림 개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독일에서 이민자나 난민으로 지내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종의 배후 동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고트프리트 마르텐스(Gottfried Martens) 목사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임을 믿는다고 했다. 고트프리트 목사는 포크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망명에 대한 희망 등으로 교회로 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는 그들을 기꺼이 초대하고 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시리아 난민과 모든 지역에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약해졌을 때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중심 관점에서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자던 중 새벽 4시쯤 가위에 눌렸습니다. 형체 없는 무엇이 저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 다. 숨도 쉴 수 없게 단단히 목을 조르고 있어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꿈인 줄 알고 깨면 되겠지 했는데 이것이 현실인 것을 안 순간 ‘예수 이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그렇게 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를 20번 넘게 외치고 나중에는 ‘예수’만 크게 외쳤습니다. 살아온 날 동안 딱 3번 가위에 눌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척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소복 입은 귀신이 보여 쫓아냈더니 저에게 더 다가오기에 쫓는 것을 포기하고 막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시절 친구 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귀신이 보여 쫓아냈더니 저를 더 크게 비웃어서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소심한 시절을 지나 지금에서는 담담하게 귀신을 쫓을 수 있게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추석에 안 믿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므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죽일 수는 없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송헌혜
charisma0691@hanmail.net



코스타리카 솔리스 대통령과 함께

“그 나라의 권력과 재력 있는 자들, 언론과 방송이 돕게 하시고, 각 나라의 통치권자들이 부르게 하소서.”

목사님이 해외집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면, 단에서 자주 하시는 기도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익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집회 영상을 통해 각 나라의 통치권자를 비롯하여 주지사, 시장, 검찰 및 경찰, 경제인들, 신문, 방송 등이 집회를 돕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바로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 권력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도움이나 그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지난 5월에 진행된 파나마(Panama) 집회에 목사님은 파나마의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Rodriguez) 대통령을 만나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파나마 국회를 통과한 동성결

혼법안에 대해 담대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파나마 국민들이 환호했다는 내용이였다. 당시 참 믿음이 좋고 겸손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목사님의 조언을 경청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한 그의 믿음이 정말 멋지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만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mo Solis Rivera, 57세) 대통령은 더욱 신앙심이 투철한 정치인이었다. 이번 산호세(San Jose) 집회를 준비한 웅(Jose Antonio Wong) 목사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를 통하여 목사님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알렸고, 이에 솔리스 대통령이 목사님을 대통령궁 오찬에 초청하였다. 이 모두가 목사님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코스타리카는 중립국가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내전이나 군사쿠데타 없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이다. 솔리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최초로 좌파정권을 세운 인물이지만 정치경험은 전무하고, 행정 및 외교가로 활동한 전력을 갖고 있다. 공식 포토타임 후 기자들은 오찬석상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취재를 통해 오찬모임을 재구성해보았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갖는 권세로 솔리스 대통령에게 권면하셨다. 항상 지도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솔리스 대통령은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

로 화답하며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나라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이 나라에 자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원 중의 자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정치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대출의 명수가 되어야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차관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 자본을 끌어들이 이 나라를 개발하고, 백성들이 일거리를 갖게 하는 것이 복지 중의 복지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지인들을 활용하여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널리 광고해야 합니다. 유엔총회에 가신다고 하니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 러시아(Russia)의 푸틴(Putin)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강대국 정상들을 찾아가 자존심 버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사람이 경쟁력이니 해외에 나가있는 인재들을 찾아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목사님의 국가발전전략 강연에 솔리스 대통령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함께 갔던 웅 목사는 교회를 잘 꾸미고 난 뒤, 대통령을 교회로 초빙하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찾아갔는데, 말할 틈을 얻지 못했다며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웅 목사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의 아쉬움보다는 이 날에 그가 받은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 대통령 한 분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500만 백성을 위해 기도해주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단임으로 끝내지 말고 국가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코스타리카를 반석에 올려놓는 대통령이 되라고 격려하시고, 한국에 오거든 모든 것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목사님의 말씀에나 또는 기도해줄 때마다 큰소리로 아멘, 아멘하며 화답했다. 참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목사님은 기뻐하셨다.

오찬모임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마친 솔리스 대통령은 현관까지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배웅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도 취해주는 등, 매우 겸손하고 친화력 있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 파나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참 믿음이 좋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코스타리카 대통령 역시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매우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았다.

좋은 지도자를 얻는 것은 그 나라의 복이 아닐 수 없다. 목사님이 기도해주신대로 솔리스 대통령도 파나마 대통령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사랑하며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안녕하세요’의 힘

어느 취업포털에서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위로 뽑혔을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 예쁘고 잘생긴 사람? 1위는 바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힘이 생각보다 강한 것이지요.

인사 잘하는 일, 너무 쉬운 일 같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빠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혹은 낮가림이 심해서 인사를 안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속사정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그저 무례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매년 많은 인턴들이 들어오는데요, 신기하게 함께 일하지 않았는데도 호감이 가는 인턴과 그렇지 않은 인턴으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 차이를 생각해봤더니 인사의 차이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밝고 기분 좋게 인사하는 쪽이 더

예의 있고 성실하고 싹싹할 것 같은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자기계발서 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입 모아 말하는 성공 노하우 중엔 인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사회초년생 댄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요새 좋은 일 있어요? 얼 굴이 좋아 보여요.” 라는 상대방의 인사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적이요. 버스기사님께 건넨 “감사합니다.”가 그분의 하루에 새 힘을 주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넨 “수고가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가 그 사람들을 기운 나게 하기도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길고 오래가지요. 이것이 인사의 능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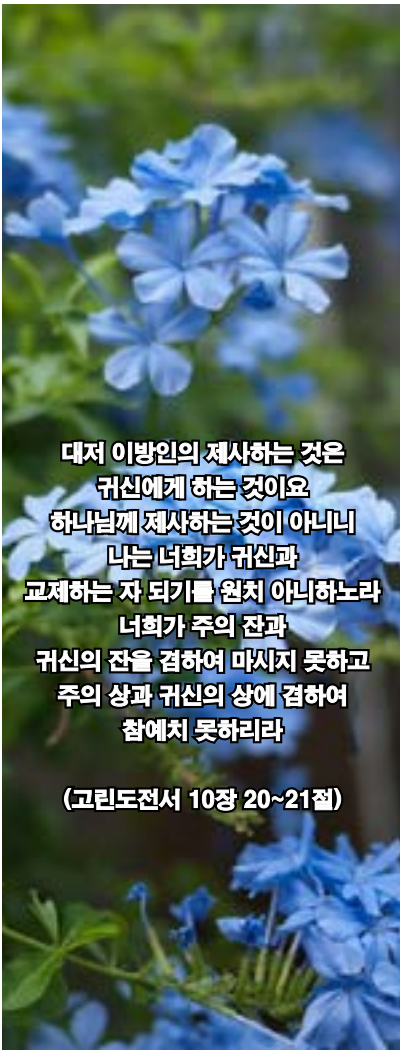
잠언에 이런 말이 있지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의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을 인사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인사는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사람마다 친구가 되게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눅10:5). 평안을 비는 일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인사를 잘 해야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반성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성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의 인사습관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곁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21절)